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22~4/28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살다 막힐 때 한줄 해결사(관세음보살40수자전 필사명상)	동은	조계종출판사
2	마음닦는 요긴한 편지글(원오심요)	원오극근/벽해원택	장경각
3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성엄,대성	탐구사
4	법화경 마음공부	페이윙	유노북스
5	참선 수행자를 죽비로 후려치다(참선경어)	원택	장경각
6	나무아미타불	야나기 무네요시	조계종출판사
7	경전숲길	정운	조계종출판사
8	궁금하세요? 우리 절집	고연희	운주사
9	돈황본 육조단경	성철스님	장경각
10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버무린 사찰음식	선재스님	불광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단단한 삶은 보통의 날들로 이루어진다	펄 카츠	북다
2	차와 클래식의 공명 포시즌	이상철	차와문화
3	도표로 읽는 천수경 입문	목경찬	민족사
4	요가 디피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5	수행 초탈인가 치유인가	박찬욱 기획/한자경 편집	운주사
6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으로 풀어본 반야심경	김성구	운주사
7	초기불교입문	각묵스님 지음	초기불전연구원
8	능가경 역주	박건주 역주	운주사
9	원각경 이가해	함허득통, 감산덕청	운주사
10	티벳 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초펠 편역/게시 소남	하늘호수

고립의 시대, 관계의 길을 묻다



사랑을 알아 참 다행이다
꽃스님 지음
위즈덤하우스
1만7000원

SNS로 청년들과 소통하는 '꽃스님'
고립의 시대에 필요한 사랑의 언어
"삶은 사랑 돌려주는 회향의 여정"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SNS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꽃스님' 범정 스님이 첫 산문집 〈사랑을 알아 참 다행이다〉를 출간했다.

스님은 자신의 생애를 날줄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씨줄로 삼아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들에게 위로를 건넨다. 고립을 당연시하는 시대에 '인연'이 여전히 힘이 될 수 있음을, 삶은 사랑을 배우고 돌려주는 여정임을 보여주는 책이다.

여주는 '회향'의 마음이 담겼다.

시작은 이별이었다. 열다섯 살 무렵 부모님은 삼 남매를 모두 절에 데려갔다. 이별에 대한 예고도, 마음의 준비도 없었던 소년은 느닷없이 절에 남겨졌다. 한 달 넘게 울며 그리움과 원망, 상실이 뒤섞인 밤들을 보냈다.

절에 사는 아이라며 놀림을 받을 때, 비 오는 날 데리러 오는 이가 없어 서러울 때 따뜻하게 품을 내어준 이는 화엄사 스님들이었다. 여느 아이들처럼 공부할 수 있게 해 주었고,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는 여행을 선물했다.

"공부는 안 해도 된다. 대신 운동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세상을 좀 봐라." 은사 우석 스님의 권유로 두 달 반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 스님의 마음에 갈등 대신 깊은 안도가 자리 잡았다. '몸[身]출가'에 이은,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서는 '마음[心]출가'였다.

그렇게 넘치도록 받은 사랑은 자신을 아끼는 마음으로 자라났다. 결국 사람을 살게 하는 건 다른 이의 사랑이 아니라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이라는 깨달음이다. SNS에 올리는 스님의 글은 이러한 깨달음을 세상에 전하는 회향의 일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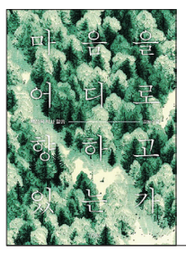


구례 화엄사 홍보국장 소임을 맡고 있는 '꽃스님' 범정 스님. **사진 출처=범정 스님 인스타그램**

스님은 상처를 성찰로 단련한 삶의 궤적을 바탕으로 "나를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 모든 관계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일"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책에서는 스님이 SNS에 담지 못했던 깊은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수행자의 언어와 일상의 언어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문장도 편안하게 읽힌다.

마음 닦는 자리서 우주를 보다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백성욱 말씀
김원수 지음
김영사 / 1만8000원

백성욱 박사의 법문·일화 엮어
〈금강경〉 정수를 일상 언어로
"닦은 대로 삼라만상 펼쳐진다"

1990년 초판 출간된 백성욱 박사의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가 새롭게 독자들과 만난다. 백성욱 박사(사진)가 생전에 제자들에게 들려주었던 법문과 일화들을 김원수 백성욱박사 교육문화재단 이사장이 엮은 책이다.

백성욱 박사는 한국 근현대사의 격랑 속에서 수행과 실천을 함께 했다. 1897년 태어나 일제강점기에는 3·1 운동과 상해임시정부 활동에 참여했고, 독일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귀국해 불교 혁신운동에 몸담았다.

그러나 그는 세속의 길을 내려놓고 금강산에 들어가 장기간 수행에 몰두했고, 이후 다시 교육과 사회활동으로 나아가 동국대학교 총장을 지내는 등 독특한 이력을 남겼다. 수행자이자 지식인, 실천가로서의 생애는 이 책의 사상적 깊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

저자는 불교의 업(業)과 연기(緣起)를 현대적 언어로 풀어내며, 우리의 삶이 우연이나 외부 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의 방향'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닦은 대로 삼라만상이 펼쳐지나니, 그대 마음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책에는 전생의 인연으로 얽힌 원님의 일화, 신문 배달하는 아이와의 대화 등 구체적이고 생생한 사례들이 풍부하게 담겨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독자들이 수행을 먼 산속의 일이 아닌, 지금 이 자리에서 실천 가능한 삶의 태도로 받아들이게 한다.



저자의 사상적 기반은 〈금강경〉이다. 그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와 '항복기심(降伏其心)'이라는 핵심 가르침을 실천적 지혜로 치환한다.

예컨대 "나를 밝게 해 주는 이가 내 부처님"이라며 밖에서 부처를 찾지 말라고 경책하고, 올라오는 온갖 분별심과 탐욕을 '미륵존여래불'이라는 밝은 광명에 바치라고 말한다. 이는 아상(我相)이라는 견고한 벽을 허물고 우주의 무한한 에너지를 내 삶으로 끌어들이는 가르침이기도 하다.

초판 서문에서 김원수 이사장은 "이 책이 구도의 길을 걷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여수령 기자

꽃이 건네는 침묵의 응답



꽃이 답하다
일대 스님 시집
장경각
1만원

30년 수행서 마주한 깨달음
본래 자리 향한 구도의 노래

꽃은 말이 없다. 그러나 피어나는 순간 이미 하나의 응답이 된다. 일대 스님의 첫 시집 〈꽃이 답하다〉는 바로 그 침묵의 응답을 시의 언어로 그려냈다.

1993년 해인사 백련암으로 입산해 30여 년 넘게 수행의 길을 걸어온 스님이 산사와 자연, 계절의 흐름 속에서 마주한 삶과 깨달음을 67편의 시로 엮어냈다.

스님은 작가의 말에서 "산사의 바람, 섬과 바다, 계절의 빛과 어둠이 곧 나의 스승이었고 문학의 언어가 되었다"고 밝혔다. 수행은 선방의 참선과 경전 공부에만 있지 않고, 자연의 섭리와 삶의 풍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상에도 살아 있다는 것이다.

1부 '삶의 무게와 일상의 풍경'에서는 몸과 마음이 겪어내는 무게, 일상에서 스쳐 지나가는 풍경 속 사유를 담았다. 이어 2부에서는 수행과 신앙의 길에서 만난 내적 성찰의 여정을 그린다. 3부에는 섬과 산, 바다의 풍경에서 삶의 단상과 자연의 목소리를 담았고, 4부에서는 계절의 흐름 속에서 삶의 덧없음과 그리움을 노래한다.

김용락 시인은 "균형 잡힌 아름다운 사유와 서정적이며 깊은 불교적 통찰을 동시에 보여주는 귀한 시집"이라고 평했다.

여수령 기자

단단한 언어로 전하는 희망의 빛



낯익은 아이에게
성희철 시집
도서출판 해조음
1만2000원

뇌병변 딛고 품은 시 60편
일상의 삶·사유 담담히 노래

"휠체어에 앉아 있는 / 낯익은 아이야 // 건강하게 잘 있거라 / 다시 만날 때까지 // 다시 만나면 / 우리 뜨거운 가슴으로 / 포옹을 하자"

–'낯익은 아이에게'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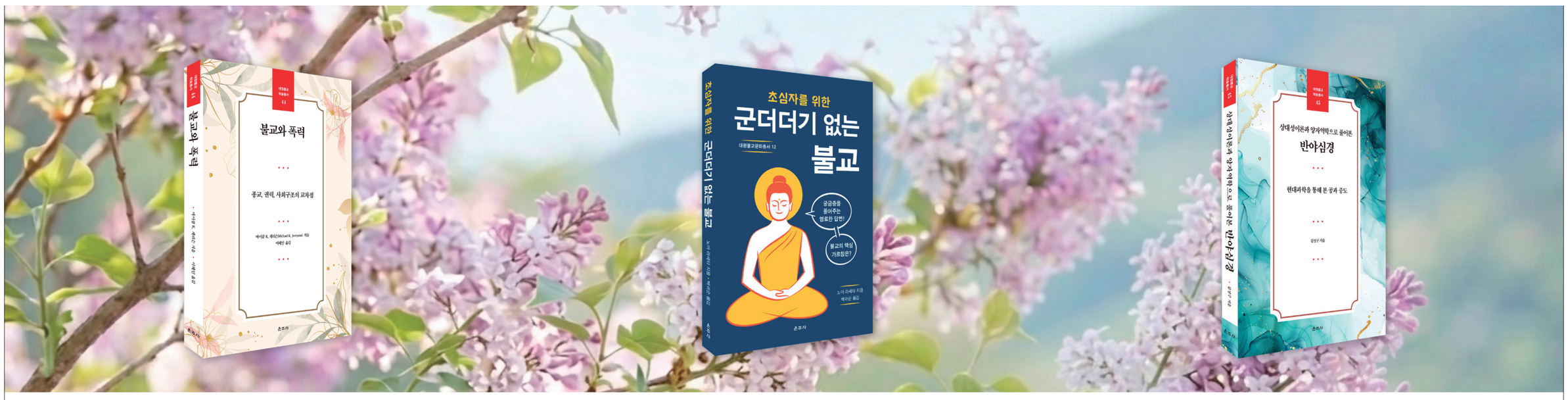
뇌병변 장애를 딛고 창작을 이어가는 성희철 시인이 세 번째 시집 〈낯익은 아이에게〉를 펴냈다. 장애인 불자 모임 '보리수아래' 회원으로 활동 중인 시인은 이번 시집을 통해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길어 올린 사유와 위로의 언어를 독자들에게 건넨다.

시집은 '삶과 꿈이 만났을 때' '현실과 마음 사이' '시인으로 사는 법' '날 위로하는 저녁' 등 4부로 구성됐다. 아침과 계절, 길 위의 풍경, 반찬과 편지 같은 소소한 일상의 소재를 통해 삶의 결을 섬세하게 포착한 60여 편의 시가 담겼다.

성 시인에게 시를 쓴다는 일은 삶을 견디는 방식이었다. 그는 "말없이 지나가는 날들 속에서 언어를 붙들며 조금씩 저 자신을 이해하게 됐다"며 "제 언어가 누군가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고 미세한 울림으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는 "단단하면서도 온화한 언어로 희망의 미세한 빛을 건네는 작품들"이라고 추천사를 남겼다.

임은호 기자



불교는 과연 비폭력의 종교인가?

불교와 폭력

불교가 역사적으로 전쟁과 고문, 성차별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어떻게 공생해 왔는지를 방대한 자료와 현장 연구를 통해 입증하고 있는 정교한 학술적 시도!

마이클 K. 제리슨 지음, 이혜인 옮김/신국판/376쪽/값 24,000원

불교란 무엇인가?

초심자를 위한 군더더기 없는 불교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복잡한 교리 대신 명료한 설명과 실제적인 예시로 불교의 핵심을 안내하는, 불교를 처음 만나는 이들을 위한 입문서이자 실천서!

노아 라셰타 지음, 백귀순 옮김/국판변형/184쪽/값 15,000원

현대과학을 통해 본 공과 중도!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으로 풀어본 반야심경

양자역학과 상대성이론을 통해 '공'과 '중도'라는 불교의 핵심 진리를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통해 『반야심경』의 참뜻을 현대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김성구 지음/신국판/328쪽/값 24,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